

전남지사 후보들 '휴일 선거전'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일요일인 3일 각 정당 전남지사 후보들이 휴일 거리로 나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바른미래당 박매호, 민주평화당 민영삼, 정의당 노형태, 민중당 이성수 후보. /연합뉴스

광주상의 "현대차 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 환영"

광주상공회의소는 3일 성명을 내고 현대자동차의 광주 완성차 공장 참여 의향서 제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광주상의는 성명에서 "현대자동차의 이번 결정으로 지역 자동차산업 경쟁력과 청년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총력을 기울여 온 민선 6기 핵심사업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완성차 기업의 투자는 노사 상생에 기반을 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완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이제야 비로소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강조했다. 또 "공장 설립이 본궤도에 올라 적정 근로와 임금, 원하청 간 상생 발전, 안정적 노사관계라는 결실을 거두면 자동차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해외진출 기업이 돌아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는 "노조도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광주시 5·18 행방불명자 가족찾기 기간 연장

광주광역시시는 5·18 행방 불명자 유가족 DNA 확보를 위한 혈액 채취 신청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신청 기간은 5월 말까지였으나 30명이 접수하는데 그쳐 더 많은 확보를 위해 추가로 한 달 연장했다. 혈액 채취 대상은 5·18행방불명자의 부모, 자녀, 형제로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방불명자 유가족 혈액은 향후 암매장 발굴

등 유골 발견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광주시는 "최근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각종 증언과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가족들의 채혈 신청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신청이 저조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유가족들의 참여를 위해 홍보 등 가족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4월초 전국 시·도와 유관기관 등 홈페이지에 '5·18행방불명자 가족 찾기'를 공고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광주·전남 '나들이객' 표심잡기

지자체장·교육감 후보 등
오일장·번화가서 지지 호소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 동안 광주·전남 후보들이 표심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정치 기반인 광주 광산구를 찾아 영광동 사거리로 중심으로 집중유세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전덕영 후보도 광산구 송정5일시장과 첨단 쌍암 공원을 찾아 중장년층부터 자녀와 나들이 나온 30~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유권자들과 접촉하며 표발을 누렸다. 정의당 나경채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전남대 후문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등 북구에 거점을 두고 유세를 벌였다. 민중당 윤민호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방송대담 녹화와 광주 영어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한 뒤 광산구 쌍암동 첨단LC타워 사거리에서 시민과 만났다. 전남지사 후보들도 전남 동·서부를 아우르며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민주당 김영록 후보는 오전부터 곡성·구례읍 오일장 등을 돌며 상인과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이개호·송영길·이종걸 의원 등도 지원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박매호 후보는 곡성 읍장 유세, 교회 예배에 이어 장흥·강진 터미널을 찾아 지지를 당부했다. 평화당 민영삼 후보는 목포 시외버스터미널·역·평화광장과 영암·무안 등에서 유세를 하며 서남권 공략에 집중했다. 정의당 노형태 후보는 이정미 당 대표와 함께 곡성 오일장을 시작으로 광양, 순천, 여수 등 동부권 순회 유세에 나섰다. 민중당 이성수 후보도 구례·나주·화순·곡성 장터 등을 돌며 당과 자신에 대한 성원을 부탁했다. 시·도 교육감 후보들도 오일장과 종교 시설, 번화가 등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는 1913 광주 송정역시장에서, 장회국 광주교육감 후보는 풍암 저수지에서 열린 유세전을 펼쳤다. 최영태 광주교육감 후보는 종교시설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기아 챔피언스필드 등을 찾아 집중유세를 했다.

고석규 전남교육감 후보는 구례·여수·순천·목포 등 동·서부권 오일장과 종교 시설에서, 오인성 전남교육감 후보는 순천·무안·목포의 종교시설과 번화가에서 유세를 벌였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는 순천·화순·목포·해남·여수 등 전남 전역의 시장과 종교 시설, 아웃렛 등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후보들도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광주 서구갑 재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송갑석 후보는 광천동 성당과 광천교회, 치평동 조기 축구회, 상가 등을 돌며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다. 평화당 김병진 후보도 서문교회를 시작으로 금호월드, 동천동·치평동 번화가를 돌며 거리 인사를 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민주당 서삼석 후보는 신안 지도와 중도, 임자도를 찾아 주민들을 만났다. 평화당 이윤석 후보도 이날 오전 신안 지도읍 오일장에서 박지원 국회의원과의 당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과 함께 합동 유세를 하며 세말이에 나섰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i@metroseoul.co.kr

여수낭만버스, 탑승률 '100%'로 달린다

여수 야경·바다·뮤지컬·공연 접목
SNS후기·낭만엽서 등 이벤트 다채



지난 19일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서 관광객들이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탑승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모습.

여수의 야경과 바다, 뮤지컬과 공연을 접목한 관광 상품인 '여수낭만버스'가 올해 9차례 운영되는 동안 탑승률 100%를 기록했다. 여수시는 "지난 4월 말부터 올해 첫 여행을 시작한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9회차를 맞은 지난달 말까지 탑승률 1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운행 첫해였던 지난해 탑승 인원 1535명, 평균 탑승률 98%를 기록했다. 여수 이순신 광장을 출발해 소호동동다리, 여문문화의거리,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종포해양공원 등을 거치는 2시간 코스로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운행한다. 특히 지난해 운행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공연장르는 연극에서 뮤지컬로 변경돼 세 요정이 낭만버스에서 별이 사랑이야기를 전한다. 트럼펫 연주가 가능한 밴드가 합

류해 탑승객에게 더욱 풍성한 연주를 전한다.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랑의세레나데, 낭만엽서 보내기 등 이벤트에 더해 SNS 탑승 후기 작성 이벤트도 추진한다. 탑승 소감을 개인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린 후 주소(URL)를 여수관광문화 홈페이지(<http://tour.yeosu.go.kr/>)에 올리면 심사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예약은 시 홈페이지 OK통합예약포털(<http://ok.yeosu.go.kr/>)에서 가능하

다. 요금은 성인 2만원, 경로·장애인·군인·학생 1만5000원, 미취학아동 1만원이다. 여수시민은 이용요금의 50%를 할인받는다. 여수시는 "여수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뮤지컬과 버스킹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탑승문의가 빛발치고 있다"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새 콘텐츠를 개발하고 탑승객 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 = 김남중 기자

진도 야생식물 무단채취·밀반출 덜미

지난 5월 말 조도면 하조도에서 하수우와 천문동 등 야생식물을 불법 채취한 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섬 밖으로 밀반출을 시도하려던 H모씨를 지역주민, 국립공원지킴이, 진도경찰서 조도파출소가 합동으로 적발했다. 특히 택배를 이용한 이번 밀반출 사건은 선박과 항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합동 단속을 피하려 한 신종 수법으로 단속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의 노

력이 무엇보다 빛났다. 송형철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협치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중한 자산인 국립공원 내 자원을 보호하는데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신안군과 진도군에 위치한 총 204개의 유·

무인도서를 포함해 여의도 면적의 약 134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관할하고 있다. 이에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불법 행위 등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순찰이 어려운 주요 도서지역에 자원 보호단 20명과 국립공원지킴이 19명을 전진 배치시키고, 지역주민들과 공무원 자원 보호 및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전남 진도 = 김남중 기자